

자율통합 공청회 파행

광양만권 4개 지자체 중 3곳 불참

행정안전부 주최로 12일 순천에서 전국 최초로 열린 지자체 자율통합 지역 공청회가 해당 지자체 4곳 중 3곳이 불참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었다. <관련기사 3면>

행안부는 이날 순천시청 별관에서 순천·여수·광양시, 구례군 등 4곳 지자체 주민 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통합여론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여수와 광양시, 구례군 등 3곳이 공청회에 불참해 순천시 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알맹이 없는' 공청회로 진행됐다.

예초 이날 공청회는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의 사회로 정부 측에서 김성중 행안부 행정구역팀장, 순천시는 정순관 순천대 교수, 여수시는 고효주 시의원 등이 토론자 대표로 참석하고 각 시·군에서 50명씩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양시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 파행은 예견됐으나 여수시와 구례군도 이날 오전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사회자, 김성중 행안부 팀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 등 3자만이 참석,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행안부는 자율통합 추진배경과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예정된 쟁점별 찬반 토론은 3곳 지자체의 불참으로 인해 반대 측 입장이 없는 가운데 찬성 측의 일방통행식 입장만 전달됐다.

순천대 정순관 교수는 "광양만 권에는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 박람회 등 국가 프로젝트가 몰려 있는 만큼 국가의 힘을 끌어와야 한

다"며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김성중 팀장은 "통합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의 강압적인 통합은 없으며, 여론조사에서 통합에 저조한 지지가 이 나온다면 주민투표를 불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열 예정이었던 청주·청원 통합 찬반 주민 공청회도 청원군 측이 불참을 통보해 무산됐다.

한편, 순천시의 주도로 자율통합 건의서가 제출돼 촉발된 광양만권 통합 찬·반 공방이 여수·광양·구례지역의 잇따른 반대성명서 발표와 통합 반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리는 등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광엑스포 밝힐 '빛 분수'

12일 밤 광주시 서구 상무 시민공원에서 열린 '광주 세계 광(光)엑스포' '주제영상관'과 '빛 분수' 시연회에서 시민들이 화려한 조명과 함께 불을 밝힌 아경을 지켜보고 있다. 행사는 오는 19일 개막할 '세계빛도시연합 2009 광주연차총회'를 앞두고 사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내영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수능 1등급 비율도 최고

수리 100위권내 12개교... 전남외고·장성고·광양제철고도 두각

'지난 5년간 수능 전국 1위'를 차지한 광주지역 고등학교들이 2009학년도 전국 고등학교별 수능 성적(언어·수리·외국어 3과목 평균)에서도 100위권내에 상당수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선 전남외고와 장성고, 광양제철고 등이 좋은 성적을 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5년간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 표준점수를 분류해 국회 교과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1994년 수능이 시작된 이래 고교별 성적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전국 2천 200여개 고교의 2009년 수능점수 가운데 과학과와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을 제외한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을 분석한 결과, 수리영역 1등급자 비율 상위 100개 고교 중 광주에선 동성고(34위)와 광덕고(42), 살레시오고(47), 대동고(56), 문성고(60), 송덕고(68), 진흥고(71), 인성고(73), 고려고(76), 금호고(78), 동신고(89), 송덕고(99) 등 12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선 전남외고(27위·특목고)

와 장성고(50) 등 2곳이 100위권 내에 들었다.

언어영역은 광주에서 대광여고(57위), 송덕고(60), 동신여고(74), 문성고(78) 등 4개교가, 전남에서도 전남외고(29), 장성고(48), 능주고(81), 광양제철고(85·자사고) 등 4개교가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외국어 영역은 광주에서 살레시오고(75위)와 대동고(77), 고려고(82), 동성고(96) 등 4개교가, 전남에선 전남외고(23)와 광양제철고(95) 등 2개교였다.

수능 1등급은 지난해 전국 수험생(58만명) 중 상위 4%안에 든 학생들로, 1등급 학생 비율이 전국 100위 안에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위권 학생(명문대 진학자)이 많은 명문고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고교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습 능력을 반영하는 평균점수에서도 광주의 강세는 여전했다. 평균점수는 우수학생도 중요하지만, 하위권 학생이 적어야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

언어영역 표준점수 평균 상위 100

개 고교 중 광주에선 특목고인 광주과학고(45위)를 비롯한 대광여고(71), 송덕고(88) 등 3개교가, 전남은 전남외고(36), 광양제철고(69), 장성고(76), 전남과학고(85·특목고) 등 4개교가 진입했다.

수리영역은 광주고교 중 광주과학고(47위)와 광덕고(57), 대동고(61), 송덕고(67), 동성고(68), 살레시오고(83), 인성고(86), 서석고(90), 고려고(91), 금호고(97) 등 10개교가, 전남은 전남외고(35), 장성고(49), 창평고(55), 광양제철고(77) 등 4개교였다.

외국어 영역은 광주에서 광주과학고(69위) 1개교가, 전남은 전남외고(32위)와 광양제철고(72위), 장성고(77위), 창평고(91위) 등 4개교였다.

한편 2009학년 수능 점수 가운데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을 전국 16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광주 고교 수험생의 성적이 가장 높았다. 광주는 언어영역 표준점수 평균점에서 104.9점, 수리 104점, 외국어 104.6점으로 전 영역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9년 수능 1등급자 비율 상위 100위내 광주·전남고교

수리영역			
순위	학교	비율	1등급(명)
27	전남외고	20.5	30
34	광주동성고	15.4	50
42	광덕고	13.7	51
47	살레시오고	12.8	50
50	장성고	12.3	40
56	대동고	11.7	43
60	문성고	11.3	48
68	광주송일고	10.5	37
71	광주진흥고	10.4	35
73	광주인성고	10.3	43
76	고려고	10.0	41
78	금호고	9.9	36
89	광주동신고	9.2	38
99	송덕고	8.9	36

언어영역			
순위	학교	비율	1등급(명)
29	전남외고	18.5	27
48	장성고	12.0	39
57	대광여고	11.0	54
60	송덕고	10.9	44
74	광주동신여고	9.4	38
78	문성고	9.2	39
81	능주고	9.0	19
85	광양제철고	8.9	30

외국어영역			
순위	학교	비율	1등급(명)
23	전남외고	28.1	41
75	살레시오고	10.5	41
77	대동고	10.3	38
82	고려고	10.1	41
95	광양제철고	8.9	30
96	광주동성고	8.9	29

광주시 빚얼어 재정 조기집행

1,629억 차입...이자만 264억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광주시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국 지자체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1인당 세입 감소액이 14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이는 한나라당 김광립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시·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차입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광주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는 올 상반기 지방채 발행을 통해 1조4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여기에 은행 등을 통한 일시차입금 2조9천45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조

9496억 원의 지방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일시차입금 1천500억원, 지방채 5700억원 등 모두 1천629억여원의 부채를 끌어다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무려 264억여원의 이자를 물게됐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는 집행액 대비 차입비율도 전국 평균인 6.2%보다 높은 9.0%를 기록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감세정책에 따른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치를 산출한 결과, 전남주민 1인당 세입 감소액이 14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1인당 세입감소액이 100만원 이상

인 지역은 전남을 비롯해 강원(128만원), 경북(115만원), 전북(109만원), 제주(105만원), 충남(104만원) 등 6곳이었다. 또 경남과 충북의 1인당 세입감소액도 각각 93만원, 88만원을 기록했다. /윤영기자 penfoot@

조세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09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일시: 2009. 10. 18(일) 09:30

장소: 모교운동장

062-224-1461, 062-232-6897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88844 알재근

세기보청기!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boclear.com

1588-0400/061-722-0100

070-4233-5255

www.kwangju.co.kr

1588-0400/061-722-0100

070-4233-5255